

동구 동계마을·남구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 선정

동구 35개 사업에 115억·남구 유스타운 등 879억 확보 숙원사업 해결·정주여건 개선 기대... 문화사업에도 선정

광주시 일부 자치구가 각종 정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숙원사업 해결과 정주여건 개선을 앞두고 있다.

9일 동구와 남구에 따르면 동구는 국토교통부의 생활환경개선사업인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돼 국비 35억원을 지원받는 등 상반기에만 총 115억원의 국·시비를 확보했다. 남구는 국토부 주관 '2019 상반기 뉴딜사업' 공모에서 백운광장 일원이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며 총 879억원을 투입한다. 동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새뜰마을' 사업 35억원, 무등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13억원, 지원1동 영유아플라자 건립 8억원, 일자리이모작평생학습복합센터 건립 5억원,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4억8000만원, 예술의 거리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4억5000만원, 남광주특성화사업 육성사업 3억5000만원 등 35개 사업이다.

'새뜰마을'은 지산동 오지호가 주변 동계마을 생활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생활인프라 개선 및 노후 주택정비지원 등에 4년간 총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무등중 주변 도로개설 사업은 2000년대 초부터 추진해왔으나 지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워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으로, 이번 사업이 확보를 통해 협소한 도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지원1동 영유아플라자는 지원1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포함된 사업으로 재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영유아 보육환경을 위한 지역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남구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9 상반기 뉴딜사업' 공모에서 백운광장 일원이 사업지역으로 선정, 광주도시공사와 함께 총 879억원을 투입한다. 상권 활성화와 젊은 층 인구 유입·거주를 위한 유스타운(Youthtown) 조성 등 구도심 리빙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구는 우선 침체 상태인 백운광장 일원에서는 오는 2023년까지 젊은층 유입을 위한 청년 특화사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옛 보훈병원 부지 일대는 청년타운 거점 지역으로 조성된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청년복합플랫폼과 청년창업 지원주택이 8층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청년복합 플랫폼 안에는 청년창업 지원센터를 비롯한 역사박물관, 세미나실·연습실 등 청년 창업 및 일자리와 관련한 각종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청년창업 지원주택은 1층에 인큐베이팅 등을 위한 공간 30곳이 들어선다. 위로는 공공 임대주택 92세대가 꾸러질 예정이다.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 요충지인 광주 남구 백운광장에 차량들이 신호에 맞춰 통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푸른길 공원 주변에서는 무너진 상권과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 펼쳐진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스트리트 푸드존, 전기차 충전시설 등을 갖춘 184면 규모의 스마트 주차장, 미디어 파사드 및 키오스크 등 미디어 콘텐츠 활용과 각종 전시회 개최가 가능한 문화광장 등 사람중심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또 백운고개로 인해 단절된 푸른길 공원을 연결하는 다리(bridge)가 조성되며,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를 위한 지역공헌센터 등 마을소통 관련 플랫폼을 만들어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활력 넘치는 거리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낡고 오래된 인구보건복지센터 건물을 복합 개발해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 임대주택과 공동육아 나눔터, 어린이집, 기적의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동구와 남구는 문화체육관광부 '2019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 나란히 선정됐다.

각각 국·구비 6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는 동구 예술의 거리 일대 '공동예술마당'과 남구 월산동 323번지 일대 '달피달팽이 문화마을'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예술마당'에는 청년작가들의 공예품 판매공간, 예술창업 키움관 등이 들어선다. '달피달팽이 문화마을'은 골목학교, 역사박물관 등을 통해 쇠락한 구심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북구, 이달부터 사회적기업 본격 지원·육성 5억800여만원 투입 기업 자생력 확보 도와

광주시 북구는 "지난 3월 지역 12개 (예비)사회적기업과 '2019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육성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으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각종 지원을 통한 기업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다.

북구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된 12개 기업에 4월부터 1년 동안 사업비 최대 5억800여만 원을 투입, 참여 근로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기업 운영 연차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인증된 사회적기업 중 사회적가치 창출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재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북구는 지원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회계처리 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주민에게 신뢰 받는 사회적기업 풍토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취약계층 50% 이상 의무고용, 목표매출액 달성, 표준근로계약 체결 및 참여 근로자 복무관리 등의 의무사항을 수행하게 되고, 주민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해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산구,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탄력

지역개발투자협약 시범사업 선정... 180억 지원 받아

광주 광산구가 추진하는 공기산업 육성 계획이 탄력을 받고 있다.

광산구는 공기산업 육성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개발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선정 돼 180억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향후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9일 광산구에 따르면 '공기정화기술개발 및 경제생활 SOC 구축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19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역 주도로 발굴한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이다.

이에따라 광주시의 2020-2024년 3500억원 규모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 공기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산구는 이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투자협약 대상지자체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 2월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1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기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했다.

△실외 실시간 미세먼지 최적 관측망 및 버스정류장 기계 환기 시스템 개발 (70억) △시범 실증단지 구축 및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 운용 (10억) △공기산업 중심 중소기업복합지원센터 설립 (100억)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했고, 이번에 최종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광산구는 이번 시범사업 선정을 그간

노력의 첫 결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위기를 맞은 지역 산업구조를 신산업 위주로 개편할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광산구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공기산업 기업 2곳을 유치하고, 15개 지역기업을 공기산업기업으로 전환해 작·간접 일자리 110여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국가적 과제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 긴밀히 협조해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업 성공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활력을 잃은 지역산업구조도 개편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삼조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세계수영대회 기간 차량 2부제 자율시행

광주시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중 범시민 차량2부제를 자율 시행한다.

이번 부제 시행은 국제대회 성공 개최 기반 조성과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범시민 차량2부제 자율시행 기간은 선수권대회가 열리는 7월12일부터 28일까지다.

또 광주시와 자치구, 유관기관은 선수권대회 개·폐회식이 예정된 7월12일과 28일 등 이들 간 차량2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차량2부제 운영은 번호 끝번호가 홀수이면 홀수날만, 짝수이면 짝수날만 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차량과 외교·보도용 차량, 긴급·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된다.

광주시 송상진 교통건설국장은 "광주는 월드컵과 U대회 등 국제행사를 치를 때마다 150만 시민이 솔선수범해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했다"며 "이번 수영대회도 시민들이 차량2부제 자율시행에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동구 '창업지원센터' 2개분야 입주기업 모집

광주시 동구는 "창업공간 지원 등 체계적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마을공방과 청년창업허브 2개 분야다. 마을공방의 경우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문화·예술 콘텐츠 기반 전문디자인업' '수공예 창작·예술공방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이면 가능하다. 청년창업의 경우 만39세 이하 (점수마감일 기준) 예비창업자, 창업 3년 내 기업, 4차산업 관련 기술기반 기업, ICT 및 지식서비스 분야 기업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기업이 되면 최대 사용료 50%를 감면받는다. 입주 계약기간은 1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마을공방의 경우 최대 5년, 청년창업기업인 경우 최대 1년(키움공간) 또는 3년(성공공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동구청 홈페이지(www.donggu.kr)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구비서류를 창업지원센터 2층(동구 서남로 14)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동구창업지원센터(062-608-3991)로 하면 된다.
/김용희 기자 kimyh@



나주, 다도댐 부근,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전원주택, 펜션, 별장등 최고장소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토목공사 완료
 - 150평~200평씩 분할 매매 가능
 - 매매-14억2,3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